

PROCESS CONTROL INSTRUMENTATION

슈나이더 일렉트릭, ‘에코스트럭처 IT’ 공개

- 차세대 클라우드 기반 DCIM, 고객 위해 최적화된 인프라스트럭처 제공
- 클라우드와 엣지에서 데이터센터 에코시스템 전반에 걸쳐 가시성 부여
- 데이터 인사이트 제공, IoT 내장 아키텍처 플랫폼의 타사 제품 결합 가능



글로벌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전문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www.schneider-electric.co.kr, 한국 대표 김경록)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홍콩에서 진행되는 ‘2017 이노베이션 서밋 홍콩’에서 최초의 DCIM(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리) 서비스 아키텍처인 ‘에코스트럭처 IT(Eco Struxure™ IT)’를 발표했다.

‘에코스트럭처 IT’는 하이브리드 IT와 데이터센터의 환경을 위해 구축된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를 제공한다. 벤더의 제약이 없는 혁신적인 DCIM으로, IT 환경

의 이용 가능성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에 대한 능동적인 통찰력과 함께 인프라스트럭처 성능을 최적화한다. 따라서, 관리 시스템의 위험을 사전 예방하는 실시간 제안으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 어디서든 스마트폰 한 번의 터치로 하이브리드 에코시스템 전반에 대한 글로벌 가시성 확보
- 모든 장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개방형 시스템을 통한 장치 정보, 스마트 경보 및 모니터링
- 글로벌 벤치마킹과 에코스트럭처 데이터 레이크의

PROCESS CONTROL INSTRUM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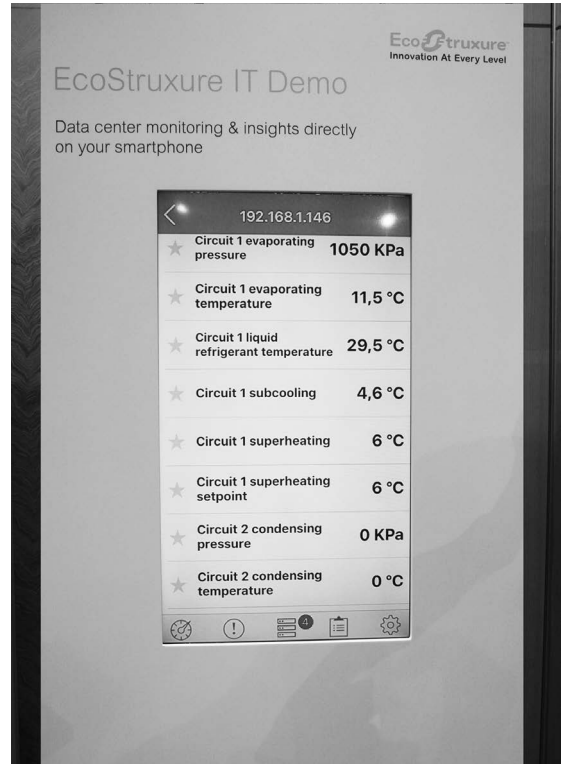
분석을 활용, 잠재적인 위험 예견

- 어떠한 환경에서도 편리한 모델 설치를 통한 간소화된 배포
- 슈나이더 일렉트릭 서비스 뷰를 통한 24시간 원격 모니터링으로 고장 해결 및 수리 시간 축소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IT 부문 수석 부사장인 데이비드 존슨(Dave Johnson)은 “예산 및 직원 감소와 함께 중요한 데이터센터 환경의 복잡성과 다양성 증가로 데이터센터 전문가는 관리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은 클라우드 우선 관리 전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에코스트럭처 IT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장치에서 데이터 센터 환경에 대한 글로벌 액세스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라며 “이러한 가시성과 고객 접근성 향상은 IT 환경 전체를 벤치마킹하면서 추세 분석, 지능형 유지 보수 등을 제공하며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IDC의 연구 책임자 제니퍼 쿡(Jennifer Cooke)은 “DCIM은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에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라며 “에코스트럭처 IT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혁신 솔루션을 통해 고객은 보다 단순하고 간소화된 배포를 경험하고, 사내 및 사외에서 자산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분산 환경을 보다 확실하게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에코스트럭처 IT’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에코스트럭처의 가장 최신 버전이다. IoT 지원의 플러그 앤 플레이 오픈 아키텍처인 로 전력, IT, 빌딩, 기계, 공장 및 그리드의 6개 전문 분야에서 엔드 투 엔드(End-to-end) 솔루션을 제공한다. 빌딩, 데이터센터, 산업, 인프라스트럭처까지 적용 가능하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사이에 지역을 선정할 예정인 ‘에코스트럭처 IT’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EcoStruxure IT Expert

전문가는 Mobile Insights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든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서 한 번의 액세스로 어디서나 하이브리드 환경 전반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한다. 데이터센터 및 IT 관리자는 추세 분석, 유지 보수 또는 실패 예측, 효율성 비교 및 기타 조치를 위해 자체 시스템 또는 업계 전반의 성과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PROCESS CONTROL INSTRUMENTATION

• EcoStruxure IT Advisor

어드바이저는 기업 및 협력업체 사용자를 위해 더 나은 시스템 최적화 및 재고관리의 필요성을 해결한다. 이는 온 사이트 및 오프 사이트의 모든 사이트 위치에서 뛰어난 제어, 계획 및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고장난 장비는 쉽게 찾을 수 있고, 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모든 규모의 데이터센터 및 IT 구축에 적합한 독립형 사내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 솔루션인 StruxureWare™를 '에코스트럭처 IT'의 일부로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에코스트럭처 IT' 아키텍처를 경험하고자 하는 StruxureWare 고객들에게 간소화된 프로세스와 장비를 제공한다.

한편, 신뢰성을 갖춘 성공적 출시를 위해 '에코스트럭

처 IT'는 미국 500대 고객, 1,000개 데이터센터, 60,000 장치 및 2백만 센서가 있는 IT 환경을 벤치마킹하여 시범 운영되었다. '에코스트럭처 IT'의 구현 결과에 대한 고객 피드백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센터 관리 솔루션에 대한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고객사인 'Peak10 + ViaWest'의 빌딩 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인 다니엘 하만(Daniel Harma)은 "4,200명이 넘는 고객들은 코로케이션, 상호 연결,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 및 전문 서비스에 걸친 하이브리드 IT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당사는 벤더의 제약이 없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에코스트럭처 IT를 단일 플랫폼으로 채택하여 모바일 인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내부적으로 에스컬레이션 정책을 대체하는 원격 서비스, 혁신 로드맵의 전반적인 지시를 통해 데이터센터의 다른 모든 장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대하여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주택, 건물, 데이터센터, 인프라 및 산업에서 에너지관리 및 자동화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고 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에서 인정 받고 있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중전압, 저전압, 보안 전원 및 자동화 시스템의 전력 관리 부문의 선두 주자다. 에너지, 자동화 및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효율적인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글로벌 에코시스템에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가장 큰 파트너인 통합 사업자 및 개발자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오픈 플랫폼에 대한 실시간 제어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공한다. 또한, 인재와 파트너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성장을 이끌며, 혁신·다양성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한 'Life Is On'의 비전 아래 모든 장소와 사람과 순간과 함께하는 것을 확신한다.

www.schneider-electric.com